

NCCK 에큐메니칼 신학 세미나

20대 대선을 맞아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묻고 답하다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ZOOM (전면 온라인)

회의 링크: <https://url.kr/id7j9k>

ID: 238 242 5962 암호: ncck1008

주제 “한국사회와 교회 -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교회의 역할”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의 정치 리더십,
선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후보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예언자적 입장의 성찰 등으로
에큐메니칼 신앙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좌장 양권석 NCCK 신학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패널 1. 최형묵 천안 살림교회 담임목사

패널 2.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중점 교수

패널 3. 이준봉 NCCK 신학위 사건과 신학 편집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종합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거, 정치” - 양권석

주최/주관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NCCK 신학위원회

NCKK 에큐메니칼 신학 세미나

“20대 대선을 맞아 -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묻고 답하다”

1. 주제: “한국사회와 교회 -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교회의 역할”
2. 주최 / 주관: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 NCKK 신학위원회
3. 취지와 목적: 본 행사는 한국교회가 WCC 제11차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WCC 신학과 선교의 정통성,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공유함을 통해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의 저변을 확산하고자 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3월로 다가와 있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 기독교 신앙적 입장에서의 정치 리더쉽, 선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한 신학적 성찰, 후보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예언자적 입장의 성찰 등으로 에큐메니칼 신앙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한다.
4. 내용: 기본 질의에 대한 패널들의 발제와 그에 대한 응답

<기본 질의>

- 소외되고 배제된 정치·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신학적 입장
 - 우리 시대(기후위기, 불평등 심화)의 정치 리더쉽에 대한 기독교 신앙·신학적 입장
 - 본래적 의미와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한 기독교 신앙·신학적 입장
 -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력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신앙·신학적 입장
5. 발제자 안내: 좌장 - 양권석 (NCKK 신학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패널 1. 최형묵 (천안 살림교회 담임목사)

패널 2.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중점 교수)

패널 3. 이준봉 (NCKK 신학위 사건과신학 편집위원, 서울신학대학원 재학중)

종합.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거, 정치” - 양권석 교수

교회와 정치: 20대 대선 국면에서 생각하다

최형목(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 기독교윤리학)

1-1.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만큼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유력 후보 본인들의 개인사와 공직에서의 역할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에게서 보기 드문 극언과 실언, 각종 구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 우리 사회 구성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겨루는 선거 본연의 성격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의혹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인을 향한 높은 도덕성의 요구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경합하는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정치인에게 정말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회 계층과 세력들이 갈등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 실현의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 제시와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도덕성 논란과 각종 구설수가 전면에 두드러진 지금 대선국면은 그 중요한 판단기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어 안타깝다. 전환기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정책과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싼 쟁론이 부차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3.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정책을 둘러싼 대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을 빌미로 성별·세대별 편 갈라치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선거전은 이후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편 갈라치기로 결집효과를 거두게 되면 투표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선거 이후에도 각 진영간 앙금으로 통합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1. 교회와 정치 또는 종교와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특정 후보를 두고 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후보가 무속신앙에 기대는 행태가 쟁점이 되는 와중에 다시 특정 기독교세력이 그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함축하는 사태로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오늘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늘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2-2.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종교화와 동시에 종교의 정치화를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곧 그것은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정치의 종교화는 정치가 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한다든지 간섭하는 행위를 뜻하며, 종교의 정치화는 종교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특권화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그저 특정한 종교의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양자의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배타적 세계관에 좌우되지 않는 투명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2-3. 바로 그 원칙에서 볼 때 앞에서 예를 든 사례들을 모두 부적절하다 아니 할 수 없다.

2-3-1. 무속신앙에 기대는 것은 신비한 종교적 아우라를 억지로 만들어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종교적 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영똥한 주술적 믿음으로 흑세무민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로써 시민적 책임의식에 따른 정치적 선택행위를 흐리게 한다. 이는 정치인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2-3-2. 특정 정치인에게 다짜고짜 안수를 해댄 행위는 해당 목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적절한 조언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특정한 종교적 예식으로 행해져야 할 일을 마땅히 그런 자리도 아닌 자리에서 했을 때 그 숨겨진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신의 영광을 임의로 도용해 왔을 때, 숨은 야욕은 거꾸로 장차 그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살 만한 행위이다.

2-3-3. 특정 종교세력 곧 신천지가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태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닌 바에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른 결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든 종교인의 입장에서든 그와 같이 파당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울 경우 보편적 공공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3-1.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2.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는 한 정치적 참여는 필연적으로 요청받는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주권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바로 그 신앙의 요구이기도 하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신앙에 근거하여 공공적 책임의 일부로서 정치적 참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3-2-1.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근거로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은 지상에서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흔히 고대 근동에서 신의 주권은 지상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성서에서 하느님의 주권은 권력을 제한하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 안에서 지배와 억압을 부정하고,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그 백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은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컨대 사사 기드온 이야기(사사 8:22~23), 왕권체제의 수립 요구에 맞선 사무엘의 경고(삼상 8:4~17)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3-2-2.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로서 하느님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하느님나라를 알려주었고, 그것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마가 10:42),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요한 18:36)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종종 가이사의 것과 하나

님의 것에 대한 논란(마가 12:13~17; 마태 22:15~22; 누가 20:20~26)은 흔히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황제의 것에 골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축한다.

3-2-3. 오늘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피조세계 전체에 구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인식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로마 8:18 이하). 사회경제적 불의와 생태적 위기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같은 뿌리, 곧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비롯되는 위기의 현상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4-1.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근원적으로 신앙의 요청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민주적 헌정질서가 추구하는 정교분리의 취지에 따라 규율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그 표현방식은 신앙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오늘 민주헌정국가 안에서 보편적 가치와 그 소통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만의 세계관적 독단에 따라 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기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입장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신앙이 그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요청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요청을 당대의 역사·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4-2.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펼쳐져야 할 장으로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당대 사람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언제나 당대의 현실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육화되어온 역사를 환기하여야 한다. 복음의 그 육화 과정을 외면할 때 교회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더욱 절박하게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는지,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헤아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3. 다른 한편 교회는 다종교 사회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안에서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믿음의 체계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이기에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치체계와 접촉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종교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태도는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된다. 배타적 진리 주장을 외치는 종교보다는 포용력을 지닌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5-1.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근거하되 동시에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한 공공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여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대 대선과정을 냉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5-2. 앞서 지적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논란이 압도하면서 선명한 정책대결의 과정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예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 자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또는 소확행을 지향하는 공약은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약은 오히려 성별·세대별 갈라치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탓에 근시안적 득표 전략에 유리할지 모르나 결코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5-3. 지금은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이른바 추격국가로서 경제성장에 몰입해왔던 시절을 지나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서 선도국가의 역할을 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선거는 그 전환기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계기이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그 명암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회이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는 말할 것 없거니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 극복,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정착, 신냉전으로 일궈어지는 정세 가운데서 질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과제,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원활히 감당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번 대선은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3-1. 무엇보다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현재 대선국면에서 여타의 후보들에게서는 이와 관련한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을 볼 수 없는 반면 민주당(2050년 탄소제로, 기후에너지부 창설, 신재생에너지와 소비를 연결시키는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세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플라스틱제로 등)과 정의당 후보(탈핵과 석탄발전 종료, 재생에너지 50% 전력생산, GDP의 2% 녹색전환 투여 등 가장 포괄적인 환경정책)에게서 그나마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오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체제의 전환 전망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의미있는 정책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주의적 접근의 한계 안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체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생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 해법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법과 긴밀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5-3-2.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은 대다수가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선거 국면마다 등장하는 경제위기의 논리는 기만이요 허구이다. 문제는 불평등이며, 따라서 사회적 위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본소득분배율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그 격차가 유난히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까지 더하면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는 애초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말할 것 없고, 노동시장 자체마저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어 다양한 층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의 여러 균열 현상이 심각하다. 이동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여 한국형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의 규모는 성장했

지만 기존의 복지 유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사회 안에서 고유한 복지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또는 기본소득은 양자택일의 사안이라기보다 충분히 수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그 실현과정에서 적절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5-3-3. 사회적 불평등에 편승하는 사회적 차별의 극복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른바 추격 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위상 전환의 과제는 경제적 성장의 차원으로 국한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제, 곧 인권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불평등구조에 따른 심각한 노동의 위기와 차별은 말할 것 없거니와 성차별 양상 또한 세계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역시 심각하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오히려 혐오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사회통합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그 위험한 조짐이 보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5-3-4.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은 두말할 것 없는 숙원과제이다. 분단과 극한적인 전쟁의 경험은 남북간 갈등의 비극 그 자체로도 문제려니와 이후 한국사회의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어 왔다. 분단의 상황이 때로 민주화와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부조리한 체제와 현실을 정당화는 구실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역대 민주정부하에서 일관된 남북화해의 시도, 그리고 가깝게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은 남북간 갈등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이루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지고 지금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해도 국제적 역학 관계 안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기편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판이니 상황은 더욱 난망하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와 더불어 담대한 상상력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5-3-5.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단순히 국력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견국가로서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강대국의 세력 각축이 벌어지는 최일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과거 불리했던 그 요인을 능동적인 역할을 펼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신냉전체제로 불리는 국제적 역학관계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친미 또는 친중 가운데 어느 일변도로 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간 평화 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더불어 국제관계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의 모색은 전환기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5-3-6. 끝으로 그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전 촛불민의를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하였다.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을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

게 기대되었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졌던 정부하에서 이렇다 할 만한 개혁적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재벌, 금융, 행정, 사법, 언론 등 여러 분야의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선출권력을 무력화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실상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후보대결에서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을 맡은 세력이 정부의 무능을 앞세워 표심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한 세력이 오히려 공정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한 꼴이다. 일종의 도착적 증상이며, 그 증상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의 기본권과 대표권을 강화하며 동시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절박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5-4. 전환기의 한국사회의 과제가 이뿐일까?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대략 큰 그림의 윤곽을 그리는 정도로 그 과제를 예시했을 뿐이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 청사진을 갖고 있다면 이를 알리고 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저 도토리 키 재기와 다름없는 공약들만 견주는 가운데 편 갈라치기로 대선이 귀결된다면,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든 그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의 무력함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기득권의 카르텔을 강화하여 퇴행하는 사태로 귀결되어서야 되겠는가?

6. 지금 우리는 엄중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다. 정작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과 그 정치세력은 마치 스포츠경기 치르듯 그 중대사를 희화화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과연 현재 정치세력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사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스포츠경기의 승률을 가늠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냉소하는 태도로 관망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세력이 짜놓은 구도 안에서 세력을 결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누구에 의해 침묵되는가?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젠더 이슈’만 있고 ‘여성’은 없는 대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세대는 아마 ‘이대남’, 즉 20대 남성일 것이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이대남의 소위 ‘전향’은 선거의 결과를 결정지으며 화제가 되었다. 연일 여러 매체와 연구자들이 이대남 현상에 대한 분석 글을 쏟아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대 여성들의 15.1퍼센트가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2년과 2017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지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20대 여성들의 또 다른 ‘전향’은 중요한 변화로 읽힌다. 2021년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향 원인의 일면에 대한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흔히 이대남은 “보수적이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며, 주식·가상통화 투자에 열중하는 세대”로

여겨진다(박하얀, “보수·반페미니즘·주식 투자?...정치권의 ‘이대남’ 소비는 틀렸다”, 경향신문 2022.02.0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대 남성의 정치적 지향을 반페미니즘으로 특징화함으로써 ‘여성 대 남성’이라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구도를 이용하여 당대표에까지 당선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1년 말부터 이어져온 국민의힘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젠더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윤 후보가 성범죄자의 강력 처벌을 주장해온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를 영입했을 때에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사퇴시킨 것에도 여성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았다. “2030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 “(젠더 문제에 대해)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이라는 사과에 오히려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전수한, “신지예·이수정 떠난 국민의 힘...‘이대남’ 돌아올까?”, 이데일리 2022.01.06.). 이어 그는 잇달아 젠더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였는데, 1월 6일 성범죄 처벌 및 무고죄 처벌 강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 12일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 등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젊은 남성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권세진, “여 ‘야당이 선거 앞두고 젠더 갈등 조장’ vs 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청년실업과 집값’”, 월간조선 2022.02.). 이러한 ‘젠더 선거’ 전략이 주효하여 2022년 들어 그의 지지율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윤 후보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수단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윤 후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여러 공약들 중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은 젊은 남성들의 주요 관심사로, 이 후보도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공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표방하는 ‘닷페이스’에 이 후보가 출연하고 나서 일부 남성 커뮤니티로부터 큰 저항에 맞닥뜨리자 이후 계획 중이었던 ‘씨리얼’ 출연을 번복한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가 ‘씨리얼’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나왔고,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일정 담당하시는 선배님께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후 곧바로 이 후보의 방송 출연이 취소되었다(윤슬기, “장혜영 ‘안티 페미 전동 휘둘리는 것도 정도껏’ 이재명 ‘씨리얼’ 출연 번복 비판”, 아시아경제 2021.12.30.).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서 여성계 출신 여당 의원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칭하고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자 했던 사실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여가부 존폐 논란에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대남의 여론에 거스르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권세진).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젠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 후보들 모두 여성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보다는 남성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젠더는 현재 대선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소외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대선 국면에서 젠더 이슈를 호출하는 양상은 성평등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정책 제시가 아니라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득표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 갈등은 누구에게 이익인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각 구애하고 있는 이대남은 사실 과장되거나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지향이 전광훈 목사나 태극기 세력으로 대표되지 않는 것처럼 이대남의 관심사도 반페미니즘으로 단일하게 수렴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 2월 9일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는 단체의 소속 남성 청년들은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정치권이 성별에 따른 갈등을 만들고 남성 집단을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으로 삼기 위해 이대남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대남 프레임으로 인해 성 차별주의자들의 목소리가 20대 남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비판하였다(박하얀).

이대남 프레임이 현실의 이대남들을 과대대표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비개신교인들은 전광훈이 이끄는 태극기 집회를 보고 개신교의 극우화를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개신교계는 전광훈이 개신교의 다가 아니라며 태극기 집회가 한국개신교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응하였다. 이때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극우 행동주의에 의해 이익을 본 이들은 누구였는가? 전광훈 개인이였는가? 공론장에서는 유통되기 힘든 날 것의 극우 목소리를 종교계를 통해 걸집시키고 미디어를 경유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및 정권교체론을 강화해 이익을 보는 진영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이대남 프레임에도 던져져야 한다. 이대남 프레임으로 조장된 젠더 갈등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20대 남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 문제와 천정부지로 뚝 집값이 청년들의 삶을 열악한 수준으로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존폐 논란은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비가시화한다.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20대 남성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대남 프레임으로 인해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온 인물이 누구인지, 누가 득세하고 있는지를 보면 젠더 갈등의 궁극적 승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응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젠더 갈등 조장 혹은 편승으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이 미뤄지는 것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진영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했을 때 에큐메니칼 진영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때에도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가 2021년 11월 9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말 긴급한 현안, 당장 닥친 위험 제거나,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에큐메니칼 진영은 침묵했다(최하얀, “이재명 ‘차별금지법 단독처리 바람직 안해’”, 한겨레 2021.11.09.). 이후 이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 항목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검토한다는 기사에도 에큐메니칼 진영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신은별,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한국일보 2021.12.16.). 최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에서 두 후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재명·윤석열 후보, 차별금지법에 공식 입장 밝혀”, 기독교일보 2022.02.07.).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2021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정국에서 이러한 침묵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 에큐메니칼 진영이 대선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은 윤석열 후보의 무속 관련 논란이다. 2022년 1월 25일 ‘무속정치·비선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명의로 “Not again 비선 정치, Not again 무속 정치”라는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1월 30일에는 신학자 28명이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월 3일 NCC와 YMCA가 공동으로 “무속 비선 정치가 주권재민의 공론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3월 1일에는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범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속 정치’에 대한 비판적 대응에서 발제자는 몇 가지 우려할 점들을 확인한다.

첫째, 무속 혹은 신천지에 대한 혐오 정서이다. 발표된 성명서들을 살펴보면 “오랜 세월 우리 평민의 아픔과 한을 위로하며 그 일상을 종교적 깊이에서 뜻깊게 동행해 왔던 무교(巫敎)”를 배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 무속을 운명론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라보고 속성상 ‘복’과 ‘힘’을 지향하는 종교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입장도 과거 팬데믹 초기 때와는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팬데믹 초기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거세었을 때 에큐메니칼 진영은 신천지의 부흥을 한국 개신교계가 반성하고 성찰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지나친 마녀사냥을 경계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신천지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종교의 궁극적 지향은 정의, 평화, 생명 등의 보편적 가치로 수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종교 간 대화와 연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다. 무속과 신천지에 대한 에큐메니칼의 날 선 비판이 이웃 종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예수 정신의 추구 위해 서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응 이슈의 선별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윤 후보의 젠더 갈등 조장이나 이 후보의 차별금지법 유보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에큐메니칼 진영이 윤 후보 측의 무속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젠더 이슈보다 무속 이슈가 대선 이후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젠더 이슈가 종교 이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는 침묵하고 어떤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기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미투 운동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반응도 모순적이다. 1월 25일자 선언문에서 “주술적인 무속의 힘을 과시하고 미투의 가해자를 두둔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는 김건희 씨의 언행은 영부인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나 소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였으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성추행 및 성희롱 범죄에 대해 일부 에큐메니칼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 혹은 연민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한 과거 사례가 있었다. 김건희 씨의 미투 가해자 두둔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과거 언행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여성 혐오의 혐의이다. 성명서들에서 나오는 “접신한 한 여성의 힘 사용설명서”, “여자 무당”, “음란한 여인”, “정략적 목적으로 결혼한 여자”, “치명적인 매력의 여인” 등의 표현은 암묵적으로 김건희 씨를 향해 있다. 과거 2016, 17년의 탄핵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성 혐오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 같은 발언에 항의하고 금지를 요청했었다(김수정, “‘닭’과 ‘년’ 없이도 ‘박근혜 퇴진’ 집회 가능합니다”, 노컷뉴스 2016.11.12.). 민주주의는 여성 혐오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광장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민주주의를 요구해온 경험이다. 그러나 이번 무속 정치 비판에서는 이러한 여성 혐오적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이 음란하려

면 그 음란함에 동참하는 남성도 있어야 하는데도 음란함은 항상 여성만을 비판하는 언어이다. 치명적 매력에 왜 여성 인물 비판의 근거인지도 의문이다. 김건희 씨 비판 내용에서, 과거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식의 해석이 겹쳐 보이는 것은 괜한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정치 활동이 선거 행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국가 운영에 반영되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기가 선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거 기간이 아닐 때에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거 국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선 참여가 과연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왜곡이나 편견 없이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어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무속 정치 관련 입장을 살펴보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기득권적 양당체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정치는 한 후보 혹은 한 정당으로 수렴될 수 없다. 이번뿐만 아니라 대선 관련하여 다양한 행동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마다 발제자 본인의 이러한 불편함을 전달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민정당 계열의 후보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답변을 들어왔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 함께 운동을 하자고 설득할 때에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보자고 하면서, 정작 대선 국면에서는 현실 정치의 한계에만 갇혀있었던 지난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택들은 그래서 발제자 본인에게 설득력이 없다.

거대 양당체제 속에 갇힌 선택들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 성소수자들의 고통은 침묵된다. 페미니즘의 적은 반페미니즘, 혹은 이대남 프레임이라는 허상을 발판 삼아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는 행태들이 아니다. 사실, 페미니즘은 오랜 시간 이러한 여성 혐오와 싸우며 구축되어 온 사상이자 운동 세력이다. 여성 혐오와 싸우는 것이 페미니즘의 역사이고 힘인 것이다. 그보다는 알면서도 꺾끄러우니 침묵하는 세력, 그것이 페미니즘 운동을 좌절시킨다. 평소에는 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그것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그러한 외침에 침묵하거나 그 외침을 무력화시키는 것,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적당히, 선별적으로 진보적인 이들의 선택 말이다.

“이대남을 향해 구애하는 야당, 이들이 등을 돌릴 우려 때문에 여성 이슈에 대해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모두 문제가 있다(권세진). 덧붙여 ‘젠더 관련해서는 야당의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여당의 입장에 침묵하는 에큐메니칼 진영’도 문제가 있다. 윤 후보는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김현빈·손영하, “윤석열, ‘내가 보복정치? 죄지은 민주당 사람들 생각일 뿐’”, 한국일보 2022.02.07.),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 고위직에서 여성 비중은 턱없이 낮고 기업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여성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젊은 여성의 자살율이 급증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살 시도자는 전해 동기 대비 10퍼센트가 증가했고, 그중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의 32.1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충격적

결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시 휴직자 수는 여성이 101만6000명으로 남성 60만8000명보다 67퍼센트나 높았다. 서비스 부문 직종 종사 비율,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젊은 층 여성들이 팬데믹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3월에만 20대 여성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누구의 절규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죽고 있는 이들은 정작 누구인가.

여성의 자살사망율 비교



자료=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량 교수
[출처=조선일보]

이십 대 남성이 바라보는 ‘이대남 현상’과 20대 대선,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

이 준 봉(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I. 들어가는 말: 이대남은 누구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간의 정권과 정책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각자 고민해야 할 때인 듯싶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을 공유한다는 취지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신학대학원생이자 개신교회의 파트 전도사, 그리고 20대 남성 청년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선이라는 정치적 사건 가운데 기독교인과 교회,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나누어보려고 한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인식 조사와 통계 분석 결과가 속출한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유독 화두로 오른 키워드이자 변수는 바로 ‘이대남’이었다. 이대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십 대 남성’의 축약어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언론, 사설 등에서 ‘이대남’이라는 용어는 민주화 시대의 청년과는 사뭇 다른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세례를 받은 청년’¹⁾으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진보적 의제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우익적인 이미지로 이대남은 회자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 사용 현상을 비판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이대남이 마치 단일한 집단인 듯 간주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²⁾, 이대남이란 용어 자체가 허구적 담론에 불과하고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며 비판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³⁾

하지만 본 지면에서는 이대남을 ‘공정을 중시하는 보수화된 20대 남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의 20대 남성들은 젠더 갈등⁴⁾과 이념 갈등⁵⁾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일부 경제나 노동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이나 타 연령대에 비해 보수적 견해를 갖는다.⁶⁾ 소위 말하는 이대남 현상이 어느 정도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나는 이 지점에서 차기 정부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이대남 현상이 야기된 배경, 그리고 이대남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1) ,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 : ‘베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2021), 450-453.
2) 이우연, “‘이대남 담론’ 비판 나선 ‘이대남들’…우리는 이대남이 아닌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7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963.html.
3) 정용인, “‘이대남·이대녀’ 현상…맞는 분석일까?,” 『경향신문』, 2021년 5월 22일 발행,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5221356001#c2b>.
4) 천관율,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2019년 4월 15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5) 새로운소통연구소·유투브팀 헬마우스, “‘이대남’과 ‘이대녀’, 재보궐 선거 결과가 갈린 이유,” 『시사IN』, 2021년 6월 3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92>.
6) 한귀영,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정치와 공론』 29 (2021), 192-194.

II. 이대남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이대남 담론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서비스에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기입하고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부터 검색량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진행된 정치적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을 포함한 4월 7일 재보궐선거였다. 선거 결과로는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인사들이 대거 선출되었다. 당선자들은 상대방 진영보다 압도적인 득표수를 보였다. 보수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은 20대 남성 연령층이었다.⁷⁾ 개표 결과가 드러나면서 각종 언론은 ‘이대남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대남이라는 키워드는 그 이후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아래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용어에 관한 관심도(검색 유입량)를 나타낸다.



[그림 4] 구글 트렌드 ‘이대남’ 관심도 분석 결과 (2020. 12. 6. ~ 2022. 2. 16. 기준)

한귀영(2021)은 20대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화된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고 논평한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대가 보수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 현재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별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데에 있다고 그녀는 지적한다.⁸⁾ 그렇다면 20대의 보수화 양상은 반복 회귀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현세대에만 드러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까? 임명목(2021)은 전자를 ‘연령효과’로, 후자를 ‘세대효과’에 의한 결과로 구분하면서 세대효과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추측한다.⁹⁾ IMF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 SNS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 MZ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 양식 등으로 인해, 오늘날 90년대생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물론, 어느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일정한 젊은 보수 세력이 존재해왔지만, 나 역시도 한국에서 거론되는 이대남 현상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논제로 귀결된다. 무엇이 한국의 20대 남성들을 ‘이대남’으로 만들었는가? 이십 대 한가운데에 있는 만 25세 남성의 시각으로 본 질의에 답변해보고자 한다.

7) , “‘분노의 스윙 보터’ 20대…남녀 표심 뜯어보니,” 「한겨레」, 2021년 4월 8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254.html>.

8) 한귀영,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167-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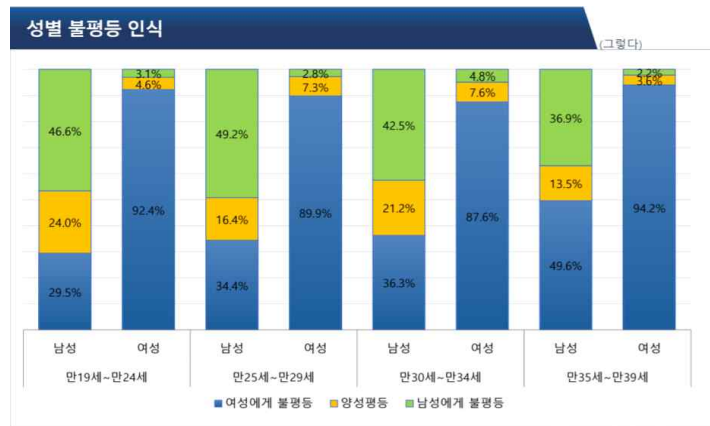
9) 임명목, 『K를 생각한다: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울: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2021), 30-32.

10) 위의 책, 29-93.

1. 이대남의 주적(主敵), 페미니즘

이대남에게 ‘페미니즘’이란 가히 주적과 같은 존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일베(일베저장소)’를 하는 사람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그것처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이대남들에게 수용과 배제의 잣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여러 설문 결과가 증명한다.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실행한 ‘20대 남자 현상’이라는 설문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었다. 상당수의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62.3%), 페미니즘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단지 ‘여성우월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78.9%).¹¹⁾

이처럼 대다수의 20대 남성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여성우월주의와 동치 관계로 생각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어왔지만, 그중에서도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TERF¹²⁾를 비롯한 일부 급진적인(radical) 페미니즘¹³⁾만을 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소셜 플랫폼인 트위터(Twitter)나 워마드(Womad) 등에서는 남성에게 대한 비하나 혐오 발언이 자주 게시되며, 심지어 범죄 행각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¹⁴⁾ 따라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각기 페미니즘을 상반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의 자체를 다르게 내리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여성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부장주의를 정리하기 위한 ‘성(性) 평등 운동’이라면, 이대남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부 진보 계열 정치인들의 술수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십 대의 남녀는 성별 불평등에 관한 인식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 사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지만, (20~34세 연령대의) 남성들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¹⁵⁾



[그림 5] 남녀가 느끼는 성별 불평등 인식 (김경희·마경희, 2018)

11) ,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2019년 4월 15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12)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자.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집단을 일컫는다.

13) 해당 개념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이효민, “래디컬 페미니즘의 급진성에 대한 검토,” 「문화과학」 104 (2020), 225-238.

14) 김민제, “법원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여성,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한겨레」, 2019년 7월 19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558.html.

15) 김경희·마경희,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조사 결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토론회 발표자료집」, (2018), 42.

이대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병역이다. 해마다 여러 정치인이 ‘군 가산점 제도’, ‘군 경력 인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법안을 발의한다. 병역 기간 단축이나 장병 월급 인상, 군 내 핸드폰 사용 등 군인의 처우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이대남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이대남이 병역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젠더 간의 갈등으로부터다. 자신은 1년 6개월~2년간의 기간을 군대에서 보낼 때, 또래의 20대 여성은 커리어를 쌓기에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혐오 발언들이 가세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군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대남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에는 ‘여성징병제’를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¹⁶⁾ 둘째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부터다. 분명 오늘날의 이대남이 경험하는 병역 환경은 소위 386세대¹⁷⁾의 병역 환경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한 점을 두고, 기성세대의 속한 어떤 정치인들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대남을 향해, 마치 ‘배가 불렀다’라는 식으로 힐난했다. 이대남의 다수가 보수 성향을 띠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주로 진보를 자처하는 논객들이 그와 같은 발언을 자주 했다.¹⁸⁾ 이로써 세대 간의 갈등은 격화되기만 했다.

하지만 이대남이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페미니즘적인 가치나 윤리에 반대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종숙(2020)이 수행한 20대와 3040세대 간의 젠더의식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성평등 인식은 30대와 40대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일부 설문 항목에서는 20대 남성의 젠더의식이 3040대 여성들보다 더욱 높았다.¹⁹⁾ 즉, 이대남은 페미니즘에 반발하지만,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는 서로 다른 집단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각기 상반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본 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16) , “‘여성도 징병’ 청원에...靑“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조선일보」, 2021년 6월 18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18/SRBGUSE24RAEZFCDX624TMMBNM/.

17) 1990년대의 기준으로 30대 나이, 80번 대 학번, (19)60년대에 출생한 인구 집단을 일컫는다. 요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586, n86세대라고도 명명한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대개 이 세대에 속한 경우가 많다.

18) 김유민, “진중권 ‘달랑 18개월 다녀와서 군대 자랑하냐’ 네티즌과 설전,” 「서울신문」, 2022년 1월 1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3500066>; 이상인, “보수·우경·마초화됐다고요? '이대남 현상' 5분 총정리,”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595#home>.

19) 최종숙,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5 (2020), 205-208.

〈표 7〉 2040세대 남녀의 젠더의식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	40대 남성	40대 여성	F값	사후검정(두 집단 간 평균값 차이,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유의확률 5% 수준)
성평등(차별)의식	남성육아수용(1~5점)	3.97	4.17	3.57	3.80	3.62	3.70	5.028***	-20대 남성-3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여성 유의미 -20대 여성은 20대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모두와 유의미
	여성직장상사수용(1~5점)	4.08	4.24	3.55	3.98	3.41	3.92	9.875***	-20대 남성-3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남성 유의미 -20대 여성-3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여성 유의미
	여성의 주도(1~5점)	3.97	4.20	3.47	3.97	3.51	3.85	7.940***	-20대 남성-3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남성 유의미 -20대 여성-3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여성 유의미
	담배 피우는 여성(1~5점)	3.48	3.43	3.09	3.24	2.80	2.78	6.168***	-20대 남성-3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여성 유의미 -20대 여성-4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여성 유의미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자는 여자를 보호(1~5점)	2.52	2.43	3.23	2.56	3.25	2.73	11.519***	-20대 남성-30대 남성, 20대 남성-40대 남성 유의미 -20대 여성-30대 남성, 20대 여성-40대 남성 유의미
여성차별 인식정도(1~5점)	3.14	3.69	3.02	3.59	3.33	3.73	9.216	-20대 남성 20~40대 여성 집단들과 유의미 -20대 여성 20~40대 남성 집단들과 유의미	

[그림 6] 2040세대 남녀의 젠더의식 (최중숙, 2020)

2. 이대남의 집결지, 남초 커뮤니티

이대남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적이다. 현세대의 이대남이 공감하고 주장하며 분노하는 대부분의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남초 커뮤니티는 ‘남성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남초 커뮤니티로는 디시인사이드(디시), 에팸코리아(팸코), 엠엘비파크(엠팍), 오늘의유머(오유), 루리웹, 일간베스트(일베) 등이 있다. 남초 커뮤니티와 비슷한 형태로 20대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는데, 이를 여초 커뮤니티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로는 인스티즈, 더쿠, 여성시대(여시), 쪽빵카페, 워마드 등이 있다.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특성상 파급력이 상당히 강하다.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을 때는 조회 수가 수만을 넘어 수십 만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특성은 어떠한 사안을 공론화시키기에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칫하여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밝히거나 명예 훼손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각기 자신들만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가관, 젠더 의식을 암묵적으로 공유한다. 만일 해당 웹사이트의 회원들이 지향하지 않는 이념의 글이 게시되었을 때는 작성자에게 수습, 수백 명의 회원이 조롱이나 비난, 모욕을 가한다. 따라서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일정한 노선’을 따르는 이들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닫힌 체계 속에서 특정한 관점의 정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강화·증폭되는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임명목(2021)은 90년대생의 사회문화적 의제가 확대되는 데에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성별 갈등에 있어 집단 극화를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이 바론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지적한다.²⁰⁾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의 시발점이자 온상이다. 발화자의 익명성과

20) , 『K를 생각한다: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63-67.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인간성의 바닥’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고, 자신과 다른 성별이나 세대, 국가 그리고 소수자를 무차별하게 힐난하는 광경이 자주 벌어진다. 때로는 정의와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사이버 범죄를 일삼기도 한다.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여혐(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응집력은 결국, 정반대의 형태인 ‘남혐(남성혐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²¹⁾ ‘미러링’이라고 일컫는 이 방식의 옳고 그름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대남들은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페미니즘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요즘에는 이대남의 상당수가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함을 알고, 몇몇 대선 후보들이 직접 커뮤니티에 접속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36)은 자신의 SNS에 에phem코리아의 로고 사진을 업로드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61)은 경선 토론회에서 남초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57)은 에phem코리아와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이대남의 표심을 사고자 했다.²²⁾ 그동안 회자된 “젊은이들이 현실에서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숨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발언은, 이제 이대남들에게 기성세대의 ‘꼰대질²³⁾’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이대남을 포함한 MZ세대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3. 이대남의 계급, 프레카리아트(precariat)

혹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을 의미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와 독일어로 ‘무산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단어로,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을 가리킨다.²⁴⁾ 영국 런던 대학교 SOAS의 경제학자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1948~)은 프레카리아트가 단순히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가 명확한 직업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계급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학력이나 교육적 배경 등 삶의 발자취는 직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프레카리아트는 직업적 보상을 전적으로 ‘임금(money wages)’에 의존하는 계급이다. 주거, 의료, 문화, 복지, 행복감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안, 아노미, 소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상태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²⁵⁾

이승윤(2019)은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프레카리아트가,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임을 강조한다.²⁶⁾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기 실업자의 비율도 늘고, 청년 고용률은 타 OECD 국가의 비율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다.

21) 이지은·김연수·김희선·김성진, “여혐-남혐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 (2019), 29-54.

22) 신민주, “‘디시’ 향한 이재명과 윤석열의 구애, 저는 좀 우려됩니다,”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2일, 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91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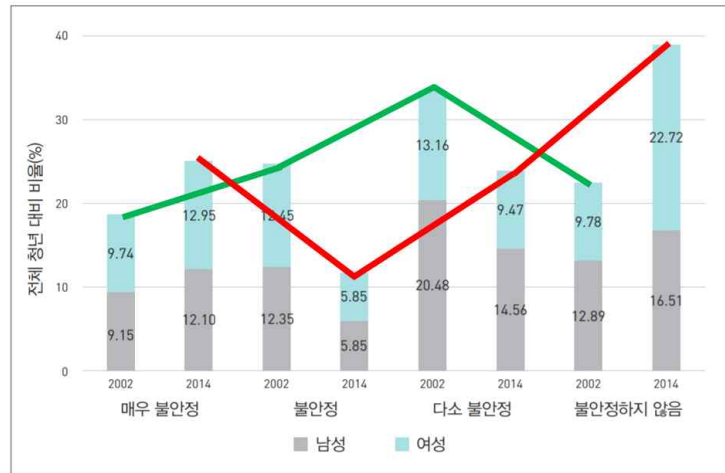
23) 본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을 가리켜 사용하던 은어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를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24) Wikipedia, “프레카리아트.”

25) Guy Standing, “The Precariat,” *Contexts* 13:4 (2014), 10-12를 요약하여 정리함.

26) 이승윤,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시대,” 「황해문화」 (2019), 21-23.

또한, 한국 사회에는 유독 특이하게 고학력 NEET²⁷⁾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한편, 임금이나 복지, 일자리 보장 등 노동 불안정성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그림 7] 청년의 노동 불안정성 요인별 규모 변화 (이승윤, 2019)

코로나19 이후로 취업 시장의 문이 더욱 좁아짐에 따라 청년들은 불안과 절망을 느끼며, 삶을 낙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는 와중이다. 본인의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다. 20대 청년은 ‘힘든 상황에 처한 세대’이다. 여자나 남자 가릴 것이 없이 상당수의 청년이 암울한 현실에 마주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남들의 표적은 칼날 같은 ‘공정’으로 수렴한다. 이들에게 직장 내 성차별과 같은 논제는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도 기성세대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에게 ‘유리천장’이라는 기회의 장벽이 있듯이, 청년 남성에게는 ‘유리바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不在)를 호소한다.²⁹⁾ 그뿐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문제 삼아 ‘여성 비율 할당 정책’, ‘여대에 설치된 약대/로스쿨 등의 불균형’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이대남은 ‘불공정하게 느끼는 일’에 분노하는 세대이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인국공 사태³⁰⁾다. 자신은 그토록 입사하기 어려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

2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약어로 현재 일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앞으로의 구직을 위한 준비(교육, 훈련 등)를 하지 않는 15~29세 사이의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다; OECD, 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

28) 이승윤,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관사회정책』 54 (2017), 487-521.

29) 박민영(2021)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유리바닥’이란 노동 환경과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는 하위 소득 남성의 혼인율(소득 10% 이하의 남성의 혼인율은 10% 미만이나, 이에 반하여 소득 10% 이하의 여성 혼인율은 40% 이상)과 산업 재해 사망 피해자의 약 96%가 남성임 등을 논거로서 제시한다; 박민영, 『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 (서울: 아마존북스, 2021), 27-86.

30) 2020년 6월에 인천국제공항이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에서 2,143명을 청원경찰의 형태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기로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진 일이다.

쳐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정작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그저 이기주의적인 (이대남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반발이라고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모 국회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조롱·일갈하였다(31), 청와대 국민청원에 언급되기도 하였다. 청원의 골자는 “국회의원도 조금 더 배웠다고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니, 국회 비서관·보좌관의 연봉과 동일하게 쳐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에는 2만 명 이상이 서명하였다. 결국, 청년들의 분노와 사회 여론으로 인해, 원청과 자회사 간의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³²⁾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갑질’에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대남(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도)이 끝내 꺼내든 선택지는 ‘영끌³³⁾ 투자’였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도 그야말로 우후죽순 진입했다. 재작년인 2020년을 기준으로, 20대의 약 40%(39.2%)가 주식 투자에 참여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기준 23.9%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수치였다. 그에 비례하여 20대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의 잔액은 평균 두 배가량이 증가했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생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³⁴⁾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20대 청년들에게 단지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질책할 수만은 없다. 그럴수록 세대 간의 갈등만이 증폭된다. 청년이 현재 당면한 위기의 원인은 개개인의 책임에 있다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모습이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고로 부(富)를 보장해준다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청년들이 외치는 공정과 기회도 이와 맞닿아 있다. 결국, 이대남 현상이라는 논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득권 유지에 힘썼으며, 사각지대를 돌아보지 않았는가를 성찰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은, 이대남은, 그 누구보다 모두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원하고 있다.

Ⅲ. 20대 대선을 앞둔 향후의 정치와 기독교의 역할

1. 국가와 대선 후보자, 차기 정치인들을 향한 바램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유권자의 표를 갈구한다. 따라서 어떠한 후보자가 공직에 선출되어 임명되기 전까지는 유권자가 ‘갑’이 된다. 대선 시즌에 언론사마다 수도 없이 진행되는 여론 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다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여기에서 다수는 다양한 층위에서 정의될 수 있다. 중산층, 이대남, (이대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성, 특정 지역, 종교, 일부 직종, 정규직 노동자, 이성애자, 비장애인, 한국인 등과 같이 말이다. 환경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인간과 대조되는 ‘을’의 위치에 있다. 즉, 대다수의 정치 결정권자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의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과 공약을

31) , “‘인국공 사태’에 김두관 “좀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오히려 불공정,” 2020년 6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1165#home>.

32) 강예슬,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자회사 포기 못 했다,” 「매일노동뉴스」, 2021년 7월 6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09>.

33)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를 축약한 신조어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무언가에 집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빚을 내어서까지 투자에 몰두하는 세대를 가리켜 일컫기도 한다.

34) 박기호, “‘동학개미 주축’ 20대 10명중 4명 주식투자...마통 2배↑ ‘빚투 우려,’” 「뉴스1」, 2021년 4월 20일, <https://www.news1.kr/articles/?4280271>.

고려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두고 ‘다수결의 원칙’이 잘 이행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인의 역할은 공리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의회의 우선적인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현재 다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약자이자 소수자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십 대 남성이자 청년으로서 올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언행과 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약속한 공약을 우직한 태도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이상 바라는 건 없다. 선거 때마다, 듣기만 해도 ‘혹’하는 수많은 공약이 남발되지만,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의 정계와 사회를 보고 있자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듯하다. 이대남이 보수화, 아니 극우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도 결국,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었다. 특정한 색깔이나 정파, 세대를 막론하고 말이다. 잇을 만하면 연이어 터지는 배임, 횡령, 성폭력, 청탁, 금품 수수, 낙하산 인사 등은 이를 공히 증명한다. 즉, 이대남은 그냥 탄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발자취이자 결과물이 바로 이대남이다.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 점을 명심해주었으면 좋겠다. 책임을 특정한 주체에 떠넘기려는 사람이 아닌, 본인의 과오도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구축하려는 행동가. 유권자들은 그러한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개신교회의 목회자이자 신학생의 입장으로 이번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제발 종교 지도자나 종교 단체의 ‘눈치’를 그만 보았으면 한다. 여러 종교인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의 종교 문화 진흥을 도모한다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하지만 그저 표심만을 확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위는 전혀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언뜻 보면 청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잠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신자들의 표만 가져가겠다는 저의에서 말이다. 이미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도’라는 목적이 본질이 되기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차기 대선 후보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이 주요 인사로 참석하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³⁵⁾ 한편, 국가조찬기도회의 역사는 그 성격이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수 개신교 운동의 맥락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해왔다.³⁶⁾ 이들과 원만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야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보수 종교계의 입맛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만한 영향력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고로, 대선 주자들이 진정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알력에

35) (2012)은 국가조찬기도회(이하 국조기)가 헌법의 법리를 위반할 수 있는 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 국조기는 사단법인에서 개최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가기관의 장들이 자신의 공직을 내세워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행사’로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종교인과 종교 단체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집권층을 찬성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조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헌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가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특정한 종교의 의례에만 참여한다면, 이는 해당 종교를 편파적으로 지원·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송기춘,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8:1 (2012), 347-392 참조.

36) 김민아,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의 등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 83-113.

구매받지 않고, 본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확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다수와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소수와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둘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하고 실천할 일이다. 양자 가운데 무엇을 신(神)이 원하실지는 자명하다. 만약, 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주저 없이 내릴 수 있는 대선 후보자라면, 굳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아마, 신은 그러한 이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설령, 그가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2. 기독교인과 교회, 목회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 일단, 그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특정한 개인의 신앙 혹은 신학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것부터 이행되고 있지 않다. 메커니즘만 놓고 보자면, 중세의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를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특별히, 한국의 기성 교회들은 소수자와 여성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크게 좌우되는 것처럼 설교하고 훈계한다.

실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직을 면직시켰으며³⁷⁾,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명목으로 목사안수를 주지 않고 결국 군종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시켰다.³⁸⁾ 이전에 한동대학교는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이슬람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아 해직시켰다.³⁹⁾ 한편, 페미니즘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마치 신앙적 잣대로 판단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한동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페미니즘 강연의 자리를 마련하자, 교수들과 다른 학생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참석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나중에 모임을 기획한 학생들은 경위서와 진술서까지 작성했다.⁴⁰⁾ 일부 신학대학에서는 페미니즘을 ‘동성애 옹호’와 결부하여 학생들의 사상을 검열하기도 한다.⁴¹⁾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몇몇 남성 목회자들은 페미니스트 운동을 신앙에 반하는 행위로 설명한다는 질적 연구 결과도 있었다.⁴²⁾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청된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깊은 신자일수록,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목

37)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교회 재판서 징직 2년,” 「한겨레」, 2020년 10월 1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895.html.

38) 오세찬, “지독하게 웃픈 '예장 통하프 마을 양치기 이야기',” 「뉴스앤조이」, 2022년 1월 11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07&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ublishing&fbclid=IwAR0VigCTRzFyDOSe4NNxNBxVXWy7V4wZAK4C1VjUHX8kAY6l5f41uBcMPyc.

39) 이은혜, “한동대, '사상 검증'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 「뉴스앤조이」, 2018년 1월 5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6>.

40) 이은혜,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들 압박,” 「뉴스앤조이」, 2018년 1월 8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46>.

41) 구권효, “가부장적인 교회, '머느리' 된 여성 사역자들,” 「뉴스앤조이」, 2021년 8월 6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6>.

42) 이민지, “20대 페미니스트 교회여성의 여성혐오 이해와 저항에 관한 연구 : 한국 개신교회 내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3-71.

회자의 지시 혹은 권고를 따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목회자는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예배 중 설교나 광고 순서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아무개를 찍자(투표하자)”라고 종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⁴³⁾, 신의 권위를 이용한 호객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 유권자들도 단순히 목회자나 교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듣고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를 찾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선이라는 사건을 빌려, 교회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 교회가 당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여성과 청년에게도 의결권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당회에서는 교회의 행정과 운영, 기획과 같은 여러 중차대한 일들이 처리된다. 오늘날 대개의 당회 구성원은 5060세대인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화나 분위기도 이들의 선호에 맞추어져 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14:34, 개역개정)”라든지, “젊은이들은 원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벧전5:5, 공동번역)”든지의 뻔한 레퍼토리는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간 소외되었던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여성에게도 동등한 발언권을 주어 교회의 규칙을 정하고, 청년에게도 동등한 의견 행사권을 주어 담임목사나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함께 선출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어찌면 이것은 교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발걸음과도 같다. 꽤나 파격적인 제언인 듯하나, 적어도 세습과 성폭력이 난립하는 판국에도 당당하게 복직하는 목회자들을 보고 있노라 하면⁴⁴⁾, 파격의 축에도 못 낄 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IV. 결론: 가리어진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꾸며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저희 오빠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꼭 용기를 내주세요.”⁴⁵⁾
-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어떤 학생이*

지금까지 나는 이대남 현상에 관한 담론부터 시작하여, 향후 대선 후보자들과 정치권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내가 바라본 오늘날 20대 남성의 특징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가지 풀어나가야 할 남은 과제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 우선, 이대남을 향한 관심이다. 여러 언론과 정치인, 논객들은 이대남이 왜 보수화되었으며, 보수 정당과 후보에 표를 던지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명한다. 반면, 20대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대남이 또래의 20대 여성과 비교하여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아우성이 종종 들린다. 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크게 울려왔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를 방문

43) , “목사가 예배하며 "지역구 2번 찍으세요"...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시스」, 2021년 10월 22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9_0001619443.

44) 이용필, “[2021 결산③] '세습', '성 추문', '성추행', '성폭력'...돌아온 목사들,” 「뉴스앤조이」, 2021년 12월 29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58>.

45) 2016년 4월에 세월호 생존학생과 유가족 형제자매가 증언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에 세월호 참사로 자신의 오빠를 잃은 학생이 소극장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김승섭,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과주: 난다, 2022), 13에서 재인용.

했을 때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그런데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조명하는 유튜브 방송(닷컴페이스, 씨리얼)에 출연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이 '실(失)이 많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해프닝은 이를 방증한다.⁴⁶⁾ 끝내, 이재명 후보는 씨리얼 출연을 보류했다.⁴⁷⁾ 남성 유권자의 표심 이동을 경계한 것이다. 신혜은(2021)이 지적한 대로, 청년 세대 담론은 '청년 여성'의 목소리가 생략된 채로 생산·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이대녀 현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다.⁴⁸⁾

한편, 이대남 담론이 '그들만의 리그'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alookso와 KBS 시사 기획 창,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기획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정'과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이대남 현상을 지지하는 강도는 경제적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로 상층 계층의 남성이 하층 계층의 남성보다 더욱 이대남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⁴⁹⁾ 조사 결과, 중·하층 계층의 남성들은 과반수(각각 62%)가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와 같은 분배·복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반문해보아야 한다. 이대남 현상을 주도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청년 세대 전체인가? 20대 남성 전체인가? 아니면 상층 계층에서 부를 더 축적하려는 일부 남성 기득권자들인가? 이제 우리는 이대남이라는 테제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주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대선 시즌인 현재,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결코 이대남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대남, 그 이면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크고 작은 숨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대남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동안 사회와 기득권층이 이대남을 조명한 만큼 소수자와 약자, 취약 계층의 목소리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 중심적인 논의들로 인해 배제되었던 대상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의 생명권, 환경, 기후 문제 등이 바로 그렇게 가려졌던 논제들이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위해, 여러 후보자가 각자의 공약을 내세운다. 우리는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부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알고, 그 중에서도 힘이 없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46) , “김남국 "이재명 닷페이스 나가면 2030 여성표 나오냐"...텔레그램에서 심야 성토,” 「노컷뉴스」, 2022년 1월 8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663>.

47) 조준혁, “닷컴페이스 촬영 마친 이재명, 씨리얼 출연은 검토 안하기로,” 「미디어오늘」, 2022년 1월 9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35>.

48) 신혜은, “그 어디에도 ‘이대녀’ 현상은 없다,” 《NCKK 사건과 신학(Webzine)》, 2021년 7월 30일, <https://nckktheology2019.tistory.com/210>.

49) 천관율·김수지·임유나, “계급이 돌아왔다 - 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 alookso, 2021년 11월 8일 발행, <https://alook.so/posts/XBteeJ>.

일러두기

*본 논고에서 제시한 [그림 2]는 국가 공시 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발표 문헌)로서 개인적인 이용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서지 정보 출처를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기하여 게시했다. 추후, 문제가 될 시에는 그림을 삭제하거나 직접 원작자의 이용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최종숙 선생님과 이승윤 선생님께 직접 사용하여도 좋다는 동의를 얻고 첨부한 그림이다. 그림에 표기한 실선은 본 연구자가 시각화를 위해 추가로 기입하였음을 알린다. 두 분의 선생님께는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문헌

- 김감미·이지은·김연수·김희선·김성진, “여혐-남혐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 (2019), 29-54.
- 김민아,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의 등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8 (2018), 83-113.
- 김수아,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 :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2021), 450-453.
- 김승섭,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파주: 난다, 2022), 13.
- 김경희·마경희,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토론회 발표자료집』, (2018), 42.
- 박민영, 『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 (서울: 아마존북스, 2021), 27-86.
- 송기춘,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8:1 (2012), 347-392.
- 이민지, “20대 페미니스트 교회여성의 여성혐오 이해와 저항에 관한 연구 : 한국 개신교회 내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3-71.
- 이승윤,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시대,” 『황해문화』 (2019), 21-23.
- ,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2017), 487-521.
- 이효민, “래디컬 페미니즘의 급진성에 대한 검토,” 『문화과학』 104 (2020), 225-238.
- 임명목, 『K를 생각한다: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울: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2021), 30-32.
- 최종숙,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5 (2020), 205-208.
- 한귀영,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정치와 공론』 29 (2021), 192-194.
- Standing, Guy. “The Precariat,” *Contexts* 13:4 (2014), 10-12.

온라인 문헌 및 보도자료

-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자회사 포기 못 했다.” 「매일노동뉴스」. 2021년 7월 6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09>.
- 구권효, “가부장적인 교회, '머느리' 된 여성 사역자들,” 「뉴스앤조이」, 2021년 8월 6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6>.
- 김민제, “법원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한 여성,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한겨레」, 2019년 7월 19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558.html.
- 김유민, “진중권 “달랑 18개월 다녀와서 군대 자랑하냐” 네티즌과 설전,” 「서울신문」, 2022년 1월 1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3500066>
- 남지현, “‘여성도 징병’ 청원에…靑“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조선일보」, 2021년 6월 18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18/SRBGUSE24RAEZFCDX624TMMBNM/.
- 박기호, “'동학개미 주축' 20대 10명중 4명 주식투자…마통 2배↑ '빚투 우려',” 「뉴스1」, 2021년 4월 20일, <https://www.news1.kr/articles/?4280271>.
- 박희원, “김남국 "이재명 닷페이스 나가면 2030 여성표 나오냐"…텔레그램에서 심야 성토,” 「노컷뉴스」, 2022년 1월 8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663>.
- 배재성, “‘인국공 사태’에 김두관 “좀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오히려 불공정,” 2020년 6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1165#home>.
- 배훈식, “목사가 예배하며 "지역구 2번 찍으세요"…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뉴시스」, 2021년 10월 22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9_0001619443.
- 새로운소통연구소·유튜브팀 헬마우스, “‘이대남’과 ‘이대녀’, 재보궐 선거 결과가 갈린 이유,” 「시사IN」, 2021년 6월 3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92>.
- 신민주, “‘디시’ 향한 이재명과 윤석열의 구애, 저는 좀 우려됩니다,” 「오마이뉴스」, 2021년 12월 2일, 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91790.
- 신혜은, “그 어디에도 ‘이대녀’ 현상은 없다,” 《NCKK 사건과 신학(Webzine)》, 2021년 7월 30일, <https://nccktheology2019.tistory.com/210>.
- 천관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2019년 4월 15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 오세찬, “지독하게 웃픈 '예장 통합파 마을 양치기 이야기',” 「뉴스앤조이」, 2022년 1월 11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07&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ublishing&fbclid=IwAR0VigCTRzFyDOSe4NNxNBxVXWy7V4wZAK4C1VjUHX8kAY6I5f41uBcMPyc.
- 오연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교회 재판서 정직 2년,” 「한겨레」, 2020년 10월 15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895.html.

이상언, “보수·우경·마초화됐다고요? '이대남' 현상' 5분 총정리,”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595#home>.

이용필, “[2021 결산③] '세습', '성 추문', '성추행', '성폭력'...돌아온 목사들,” 「뉴스앤조이」, 2021년 12월 29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58>.

이우연, “‘이대남 담론’ 비판 나선 ‘이대남들’...우리는 이대남이 아닌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7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963.html.

이은혜, “한동대, '사상 검증'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 「뉴스앤조이」, 2018년 1월 5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6>.

_____,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개최 학생들 압박,” 「뉴스앤조이」, 2018년 1월 8일,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46>.

이지혜, “‘분노의 스윙 보터’ 20대...남녀 표심 뜯어보니,” 「한겨레」, 2021년 4월 8일 발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254.html>.

정용인, “이대남·이대녀 현상...맞는 분석일까?,” 「경향신문」, 2021년 5월 22일 발행,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5221356001#c2b>.

조준혁, “‘닷페이스 촬영 마친 이재명, 씨리얼 출연은 검토 안하기로,” 「미디어오늘」, 2022년 1월 9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35>.

천관울·김수지·임유나, “계급이 돌아왔다 - 이대남 현상이라는 착시,” alookso, 2021년 11월 8일 발행, <https://alook.so/posts/XBteeJ>.

천관울,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2019년 4월 15일 발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O E C D , 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d.htm.

Wikipedia, “프레카리아트,”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B9%B4%EB%A6%AC%EC%95%84%ED%8A%B8>.